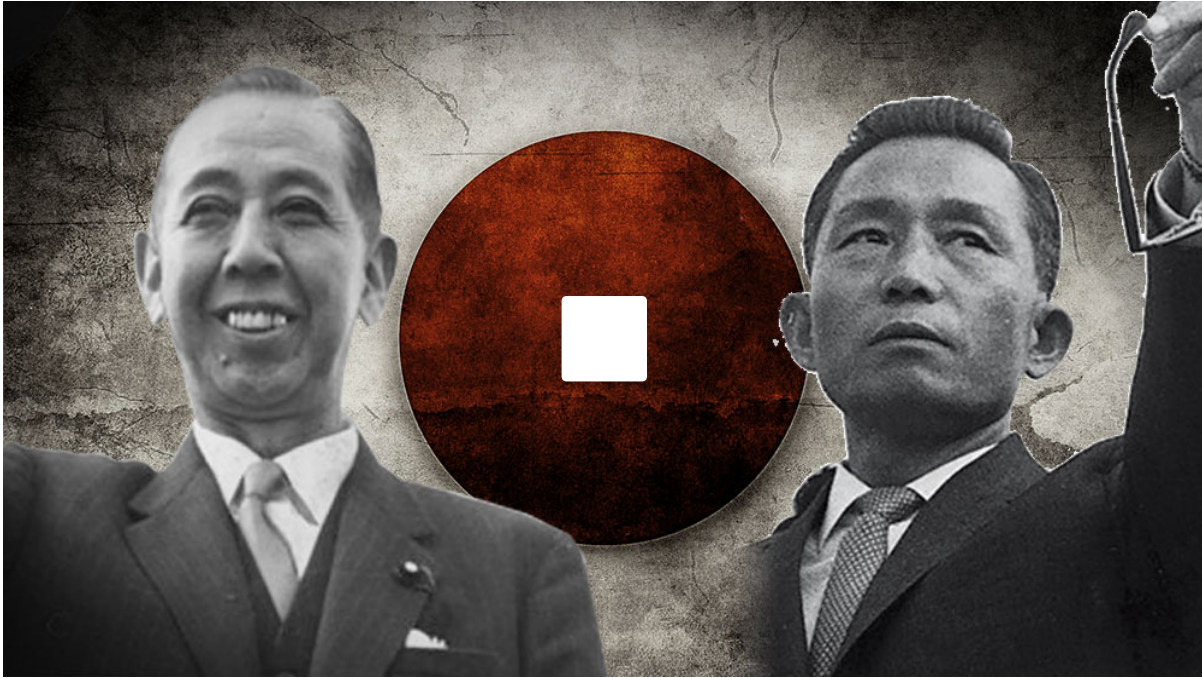




[목격자들] 헌신의 대가, 소방관의 눈물



[타파스] 잊혀진 이름, 여성독립운동가 1편 : 독립을 향한 날갯짓, 권기옥



경찰은 '공안탄압' 압수수색..시민은 '농민채유' 기원 행진



'금수저'를 위한 나라...상속세 '제로'를 향하여



자수성가는 없다...신분세습 길수록 심해져

[사회] (<http://newstapa.org/category/society>) [최신뉴스] (<http://newstapa.org/category/news>)

방송불가...박정희-기시 노부스케 친서

김새봄 (<http://newstapa.org/author/springns>) | 박중석 (<http://newstapa.org/author/pjseok>) | 김수영 (<http://newstapa.org/author/summer>) | 박서영 (<http://newstapa.org/author/seoyoung>)

f 11576 (<https://www.facebook.com/sharer/sharer.php?u=http://newstapa.org/29855>) t 0 (<https://twitter.com/share?>)

url=[http://newstapa.org/29855&text=\[뉴스타파\] 방송불가...박정희-기시 노부스케 친서](http://newstapa.org/29855&text=[뉴스타파] 방송불가...박정희-기시 노부스케 친서)

2015년 11월 12일 20시 58분 목요일 [인쇄]

KBS 탐사보도팀이 취재한 <훈장 2부작> 이 넉 달째 방송날짜조차 잡지 못하면서 사실상 불방수순을 밟고 있는 가운데, KBS 간부들이 방송불가와 원고 삭제를 요구한 것은 박정희 당시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이 기시 노부스케에게 보낸 친서였다. 친서는 1961년 8월과 1963년 8월에 박정희 의장이 기시에게 보낸 것이다.



(kakaolink://send?

appkey=17c123c56c164d9f9402536359359175&appver=1.0&apiver=3.0&linkver=3.5&obj=

```
[{"objtype": "label", "text": "
```

누현채 친서의 원본은 일본 국립현대미술관 **현정자료실**에 있고, 국내에는 사본 형태로 국가편찬위원회 사료실에 남아있다. 기존 [기시 노부스케와 박정희](김상중·현무암 편, 2012) 권서에 해당 **친서내용**과 일부가 소개됐지만, 언론사가 친서 전문을 활용한 것은 KBS 탐사보도팀이 처음이다.

파) KBS 탐사보도팀이 확인한 해당 자서는 박정희 당시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이 당시 전 총리였던 기시 노부스케에게 한일수교협정의 협력을 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송분 (dnc://mag/tx5[발] 타파) 1961년 8월과 1963년 8월, 두 차례에 걸쳐 보낸 친서를 통해 당시 박정희 당시 의장이 한일협정의 방향을 어디로 끌고가고자 했는지 분명히 드러난다.

가...박 방송불 방송불 방송불

정희- 가...박 가...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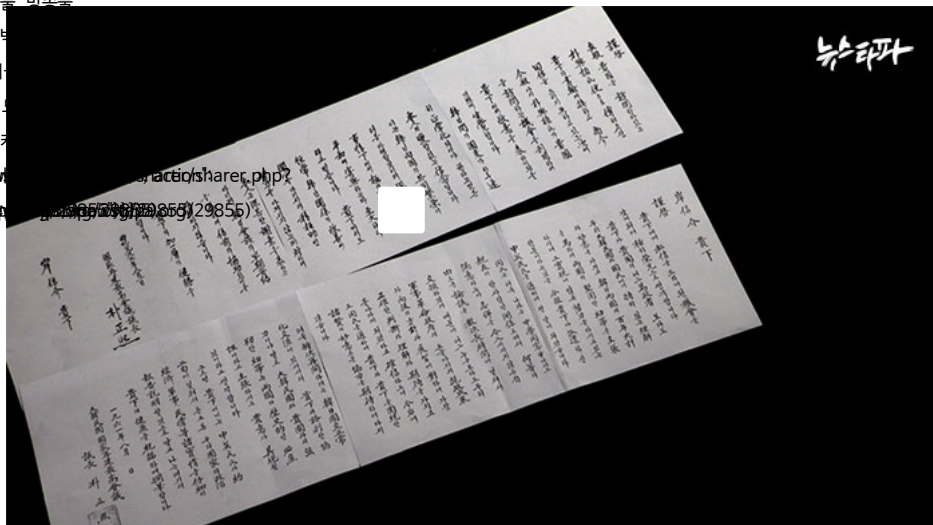
기시 노 정희- 정희-

부스케 기시 노 기시 노

친서"}, 부스케 부스케

```
{ "objtype": "link", "text": "http://newspaper.com/action/sharer.php" }
```

```
{ "type": "http://www.sqlite.org/2015/05/29/201505292985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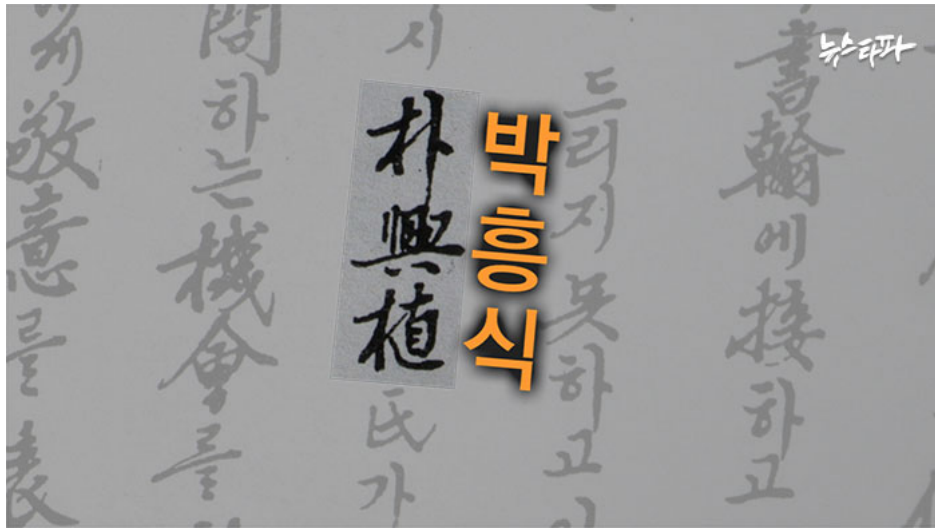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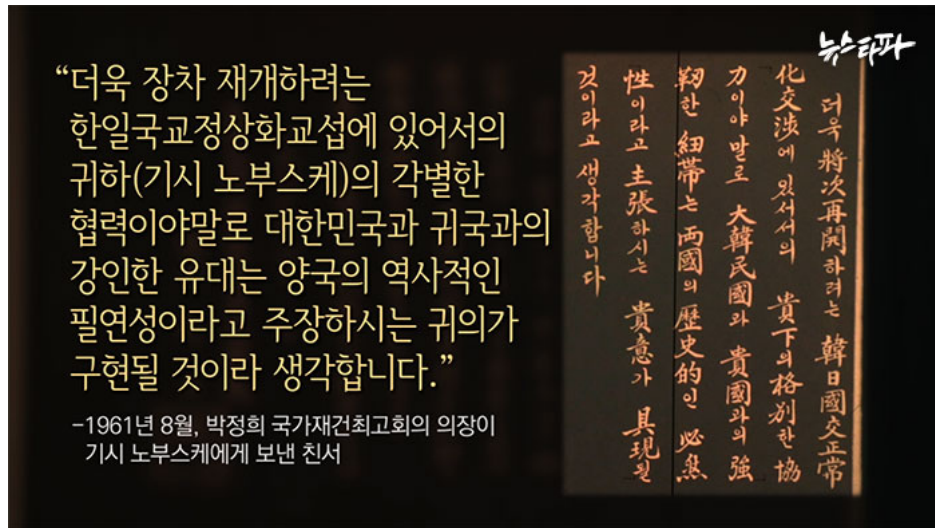


▲ 학계전문가들은 해당 친서가 1965년 한일수교 과정과 그 내막을 엿볼 수 있는 자료라고 평했다.

기시 노부스케는 36년 만주국 산업차관을 지냈으며 태평양 전쟁 시기인 1941년 상공대신으로 군수물자를 조달했고 이 과정에서 수많은 조선인들을 강제동원해 죽음으로 내몰았던 전쟁범죄 책임자 중 한 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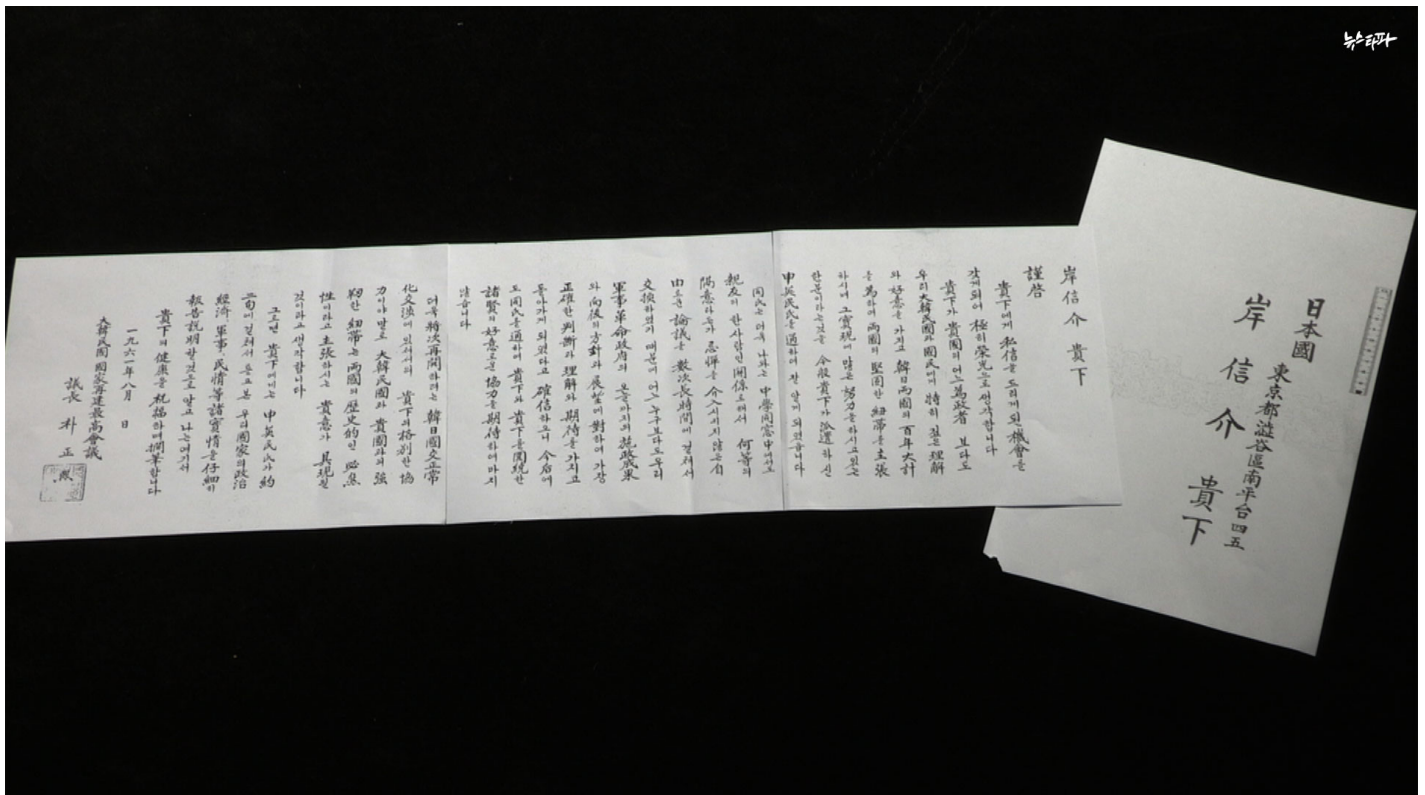
1961년 8월 서신에서 박정희는 기시 노부스케에게 “귀하의 각별한 협력이야말로 대한민국과 귀국과의 강인한 유대는 양국의 역사적인 필연성이라고 주장하시는 귀의가 구현될 것”이라 밝히고 있다. 이 친서에 대해 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부교수는 “기시 노부스케는 박정희와 동등한 입장에서 새로운 관계를 맺으려는 의도보단 과거 일제 강점기의 만주에서의 경험(대동아론)이 기저에 깔려있다”고 지적했다.



흥미롭게도 기시 노부스케와 박정희의 두번째 친서를 전달한 사람은 박흥식이다. 친서에 박흥식 이름이 등장한다. 박흥식은 일제 강점기 대표적 친일 기업인이다. 그는 1949년 반민특위가 활동할 당시 1호 체포 대상자였다. 2009년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규명위는 박흥식을 친일행위자 1,006명에 포함시켰다.

또 1961년 기시 노부스케가 박정희에 보낸 밀사로 ‘신영민’이란 인물이 등장한다. 신영민은 박정희의 중학교 동창으로 나을 뿐 구체적 신원이 확인된 적은 없다. 그가 65년 한일협정 마후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밝혀져야 할 대목이다.

이 친서는 KBS 탐사보도팀이 국내 언론으로선 최초로 촬영한 것이지만 KBS 사측은 “누구나 인터넷 검색을 하면 찾을 수 있는” 자료라며 방송 불가를 고수하고 있다. 뉴스타파는 시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촬영한 친서의 사본 전문을 공개한다.



(http://newstapa.org/wp-content/uploads/2015111202_06.jpg)

1961년 8월, 박정희 당시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이 기시 노부스케에게 보낸 친서

근거(삼가 아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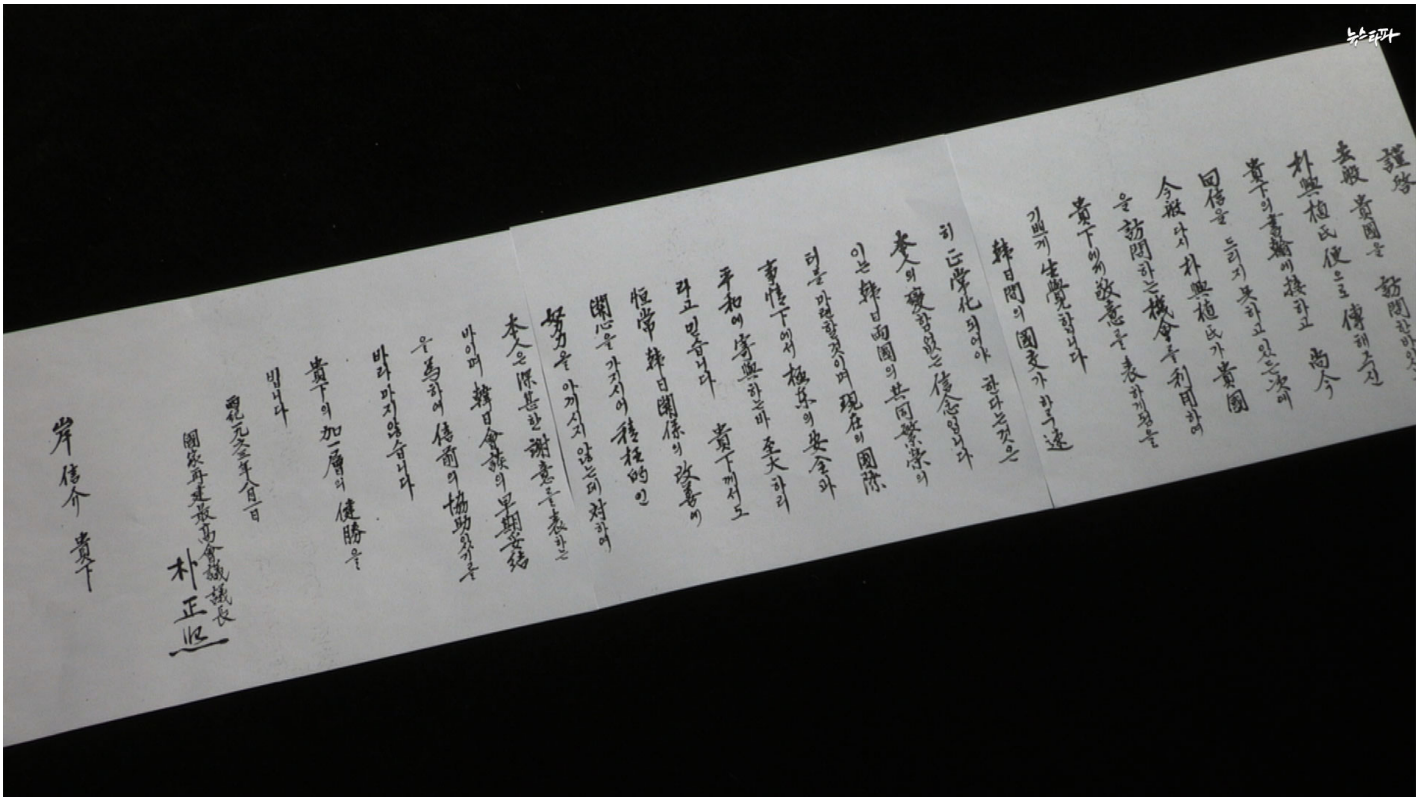
귀하에게 사신을 드리게 된 기회를 갖게되어 극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귀하가 귀국의 어느 위정자보다도 우리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특히 깊은 이해와 호의를 가지고 한일양국의 백년대계를 위하여 양국의 견고한 유대를 주장하시며 그 실현에 많은 노력을 하시고 있는 한 분이라는 것을 금번 귀하가 파견하신 신영민씨를 통하여 잘 알게 되었습니다.

동씨는 더욱 나와의 중학 동창 중에서도 친우의 한 사람인 관계로 해서 하등의 격의라든가 기탄을 개입시키지 않은 자유로운 논의를 수차 장시간에 걸쳐서 교환하였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 군사혁명정부의 오늘까지의 시정성과와 향후의 방침과 전망에 대하여 가장 정확한 판단과 이해와 기대를 가지고 돌아가게 되었다고 확신 하오니 금후에도 동씨를 통하여 귀하와 귀하를 위요한 제현의 호의로운 협력을 기대하여 마지 않습니다.

더욱 장차 재개하려는 한일국교정상화교섭에 있어서의 귀하(기시 노부스케)의 각별한 협력이야말로 대한민국과 귀국과의 강인한 유대는 양국의 역사적인 필연성이라고 주장하시는 귀의가 구현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귀하에게는 신영민씨가 약 이순에 걸쳐서 듣고 본 우리 국가의 정치경제 군사 민정 등 제실정을 자세히 보고설명 할 것으로 알고 나는 여기서 귀하의 건강을 축복 하며 각필합니다.

1961년 8월 대한민국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박정희



(http://newstapa.org/wp-content/uploads/2015111202_07.jpg)

1963년 8월, 박정희 박정희 당시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이 기시 노부스케에게 보낸 친서

근계(삼가 아뢰입니다)

거반(지난번) 귀국을 방문한 바 있는 박흥식씨 편으로 전해주신 귀하의 서한에 접하고 상금(이제까지) 회신을 드리지 못하고 있는 차에 금번 다시 박흥식 씨가 귀국을 방문하는 기회를 이용하여 귀하에게 경의를 표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일간의 국교가 하루 속히 정상화되어야 한다는 것은 본인의 변함없는 신념입니다. 이는 한일양국의 공동번영의 터를 마련할 것이며 현재의 국제사정하에서 극동의 안전과 평화에 기여하는 바 지대하리라고 믿습니다. 귀하께서도 항상 한일관계의 개선에 관심을 가지시어 적극적인 노력을 아끼시지 않는 데 대하여 본인은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이며 한일회담의 조기타결을 위하여 배전의 협조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귀하의 가일층의 건승을 빕니다.

서기 1963년 8월 1일 국가재건최고회의의장 박정희

기시노부스케 귀하

세상을 바꾸는 힘!



뉴스타파는 정부, 기업의 광고나 협찬 없이 개인 후원회원들이 보내주시는 회비로만 제작·운영되고 있습니다.

뉴스타파 정기회원 가입은 세상을 바꾸기 위한 가장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선택이 될 것입니다.

후원회원 가입하기 (<https://mrmweb.hsit.co.kr/default.aspx?Server=F5nHvJSXybtbhir>)

관련기사

(<http://newstapa.org/29847>)

(<http://newstapa.org/29847>)

(<http://newstapa.org/29847>)



(<http://newstapa.org/29847>)

(<http://newstapa.org/29847>) '훈장' 대특종 가로막은 공영방송 KBS (<http://newstapa.org/29847>)

2015년 11월 12일

(<http://newstapa.org/29842>)

(<http://newstapa.org/29842>)

(<http://newstapa.org/29842>)

(<http://newstapa.org/29842>)

(<http://newstapa.org/29842>) '도청의혹' 고대영은 'KBS 국정화' 용? (<http://newstapa.org/29842>)

2015년 11월 12일

(<http://newstapa.org/12317>)

(<http://newstapa.org/12317>)

(<http://newstapa.org/12317>)

(<http://newstapa.org/12317>)

(<http://newstapa.org/12317>) 갈길 먼 KBS 정상화... '사장 해임은 끝이 아닌 시작' (<http://newstapa.org/12317>)

2014년 6월 10일

(<http://newstapa.org/19831>)

(<http://newstapa.org/19831>)

(<http://newstapa.org/19831>)

(<http://newstapa.org/19831>)

(<http://newstapa.org/19831>) 기사 1건에 천만 원...해마피아에 기생하는 신문 (<http://newstapa.org/19831>)

2014년 10월 10일

(<http://newstapa.org/1268>)

(<http://newstapa.org/1268>)

(<http://newstapa.org/1268>)

(<http://newstapa.org/1268>)

(<http://newstapa.org/1268>) KBS, 대통령 감싸기 급급 (<http://newstapa.org/1268>)

2013년 10월 1일

같은 카테고리의 기사

(<http://newstapa.org/30170>)

(<http://newstapa.org/30170>)

(<http://newstapa.org/30170>)



(<http://newstapa.org/30170>)

(<http://newstapa.org/30170>) ‘금수저’를 위한 나라... 상속세 ‘제로’를 향하여 (<http://newstapa.org/30170>)

2015년 11월 19일

(<http://newstapa.org/30163>)

(<http://newstapa.org/30163>)

(<http://newstapa.org/30163>)

(<http://newstapa.org/30163>)

(<http://newstapa.org/30163>) 자수성가는 없다... 신분세습 갈수록 심해져 (<http://newstapa.org/30163>)

2015년 11월 19일

(<http://newstapa.org/30204>)

(<http://newstapa.org/30204>)

(<http://newstapa.org/30204>)

(<http://newstapa.org/30204>)

(<http://newstapa.org/30204>) 금수저만 키워주는 한국 교육... ‘꿈’까지 갈랐다 (<http://newstapa.org/30204>)

2015년 11월 19일

(<http://newstapa.org/30253>)

(<http://newstapa.org/30253>)

(<http://newstapa.org/30253>)

(<http://newstapa.org/30253>)

(<http://newstapa.org/30253>) ‘금수저’ 지켜주는 박근혜 정부 - 심층 인터뷰 (<http://newstapa.org/30253>)

2015년 11월 18일

(<http://newstapa.org/30097>)

(<http://newstapa.org/30097>)

(<http://newstapa.org/30097>)

(<http://newstapa.org/30097>)

(<http://newstapa.org/30097>) 광장에서의 집회의 자유를 허하라 (<http://newstapa.org/30097>)

2015년 11월 16일

댓글

댓글 한 건

Newstapa

로그인

추천 11

공유

인기순



토론 참여하기

 정의대장 · 9일 전

저런 매국노들이 지금까지 권력을 잡고있으니 이나라의 광복은 아직도 요원하다.
그러나 지금도 무식한 백성들은 속고있으니 그것이 문제로다

^ | v · 답글 · 공유

NEWSTAPA의 다른 댓글.

이것은?

국정교과서 기자회견...정부의 '3無'

댓글 한 건 · 18일 전

 Lee Ju-hyun — 생생한 영상 감사합니다.

국정방송이 증정한 국정화 선포...기자 질문은 'CUT'

댓글 2건 · 20일 전

 백승혁 — 하아... 진짜 독재국가 보는 줄 알았다.. 아니지 이제 맞나?

[목격자들]설악산으로 간 '4대강', 오색케이블카

댓글 2건 · 22일 전

 DR벳사공 — 1. 환경보호에 오히려 도움이 된다. >> 케이블카가 시작점과 끝점의 하나만 연결되는것이 아니지요. 케이블카를 돌리기 위해서 ...

26조 전투기 사업...또 '글로벌 호갱님' 인증

댓글 2건 · 17일 전

 안알라춤 — F-35 'Lightning' 라이트닝 <https://www.f35.com/>

구독

당신의 사이트에 Disqus 추가하기

개인정보 처리방침



김세봄 (<http://newstapa.org/author/springns>)

뉴스타파 PD

연관태그

박정희
KBS
탐사보도팀
신영민
KBS국정화
기시 노부스케
국사편찬위원회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newstapa.app&hl=ko>)



([https://itunes.apple.com/kr/app/newstapa/id640052515?](https://itunes.apple.com/kr/app/newstapa/id640052515?mt=8)

mt=8)



(<https://story.kakao.com/ch/newstapa>)



(<https://twitter.com/newstapa>)



(<https://www.facebook.com/NEWSTAPA>)



(<https://itunes.apple.com/kr/podcast/nyuseutapa-newstapa/id609417347?mt=2>)



(<http://tvpot.daum.net/mypot/Top.do?ownerid=7q7w4jgKfG0>)



(<https://www.youtube.com/user/newstapa>)



(<http://newstapa.org/feed>)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강로 82 벽송빌딩 6층(04099),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사업자등록번호 : 117-82-66835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02778 (2013년 8월 21일)

대표자: 김용진 (mailto:muckraker@newstapa.org) | 발행인/편집인: 김용진 (mailto:muckraker@newstapa.org) | 개인정보관리 책임자: 김성근 (mailto:thekal@newstapa.org)

Tel 02-2038-0977 | Fax 02-2038-0978 | webmaster@newstapa.org (mailto:webmaster@newstapa.org)

소개 (<http://welcome.newstapa.org/>) | 알립니다 (<http://welcome.newstapa.org/notice>) | 채용 (<http://recruit.newstapa.org>) |

인터뷰, 강의, 취재요청 (http://welcome.newstapa.org/contact_us) | 제휴, 협력문의 (http://welcome.newstapa.org/contact_us) |

자주 묻는 질문 (FAQ) (<http://welcome.newstapa.org/faq>) | 콘텐츠 사용원칙 (<http://newstapa.org/using>) | 전국언론노동조합 (<http://media.nodong.org/>) |

디지털유산 어워드 (<http://eharu616.org/display/award?year=2013>)

Copyright © 2015 The Korea center for investigative journalism, All Rights Reserved.